



스물 세번째 미국 코스타 시카고 집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가깝게는 시카고로부터 멀리는 하와이에서까지 미국 전역에서 오신 많은 분들 뿐만 아니라, 더 멀리서는 캐나다와 한국, 그리고 독일에서부터 휘튼 캠퍼스를 찾아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길'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길에 비유해 오곤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우리 각자가 원하는 삶의 길은 어떠한 모습인지, 또는 올바른 삶의 길은 과연 어떠한 모습인지 아마도 적어도 한번쯤은 고민해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러한 질문에 대해 책임있는 대답을 하고 올바른 삶의 길을 걸어가고자 노력하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이번 코스타 집회가운데 우리 코스타인들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그 해답을 함께 찾아가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코스타 집회의 daily theme은 아래와 같습니다.

월요일 - The Kingdom of God, already but not yet

이미 임했으나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이중 구조에 대한 이해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초월성/영원성과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에 대한 개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화요일 - People of the Kingdom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다루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자격, 하나님 나라 백성의 특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갈등에 대한 내용을 다룰 것이며, 특별히 복음의 기본적인 내용들이 선포되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영광에로의 초청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수요일 - The Kingdom, here on earth

이 땅에서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사는 내용을 다루게 됩니다. 개인적 영역, 공동체적 영역, 피조세계의 전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주권이 선포되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들을 생각해 보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의미가 어떤 것인가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목요일 - Called to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우리 모두가 부르심을 받았고, 그 통치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 해야 할 사명에 관하여 나누게 됩니다. 피조세계의 다양한 분야에서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고 세워지는 내용과 함께 하나님 나라로의 헌신이 강조될 것입니다.

금요일 - We are Servants of the Kingdom

각자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내용을 다루면서 코스타 여러분을 파송할 것입니다. †



사랑의손길을 찾습니다

동국의방에서 아이들을 보주실 영아부 자원봉사자를 찾습니다. 특히 저녁 집회 시간에 일손이 많이 부족하니 많이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



KOSTA/USA-2008 연차 수양회를 기초하려고

권오승 총무간사

그렇다면, 이 땅에서 친절하게 살면서도 이 땅의 가치를 초월해서 영원을 갈망하며 살고, 한편 초월적인 가치를 가지고 살면서도 이 땅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삶의 균형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비복음적 세상의 흐름 속에서 삶의 방향에 대한 '그 길'을 찾지 못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줄 해답을 누구에게서 찾을 수 있을까? ...

거시적 관점에서의 헌신은 옛날 얘기?

한 달 남짓 전에 미국 서부의 어느 지역에서 사는 한 동역자가 직장일로 필자가 있는 동네를 찾았다. 함께 식사를 나누고 저녁 시간을 보내면서 여러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가운데 하나는 요즘 젊은 학생 세대에 대해 하나님 나라와 같은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헌신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는 어렵게 느껴진다는 것이었다. 서정적인 신앙만이 강조되고 있는 요즘의 추세 속에서 신앙도, 헌신도 모두 개인화되어가고 있다는 것이었다. 우리 두 사람은 함께 그러한 현실에 깊이 동의하며 안타까워했다.

그 저녁의 대화 이후 필자의 머릿속에 맴도는 질문이 있었다. 그것은, 정말 이제 그러한 세대는 지나갔는가 하는 것이다. 이 세대는 함께 부를 노래도, 함께 외칠 구호도, 함께 흔들 깃발도 잃어버린 그런 세대가 되어 버린 것인가. 그리고 이제는 다시 이 세대를 움직일 그 무엇은 개인적, 서정적 신앙 이외에 대안이 없는가.

미래의 꿈은 정규직?

얼마 전 본 한국의 어느 TV 드라마에서 본, 대학을 가기 싫어하는 어떤 고등학생과 그 학생에게 대학을 가야 하는 이유를 설득하는 부모의 대화가 생각난다. 학생이 대학을 왜 가야 하느냐는 질문에 부모는 대학을 가서 네 꿈을 펼쳐야 하지 않겠느냐는 논리로 설득하려 했다. 그러자 그 학생은 느닷없이 대학을 졸업하고 몇 년째 취업 준비생으로 있는, 옆에 있던 삼촌에게 미래의 원대한 꿈이 무엇이라고 물었다. 그러자 그 취업 준비생 삼촌은 꿈꿈이 생각해 보더니 자신의 꿈은 '정규직'이라고 답했다. 그 고등학생은 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했다. "나더러 대학졸업 후 장래 희망을 정규직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대화를 더 극적으로 그리고자 과장을 사용했다고 이야기할 사람도 있겠다. 그러나 캠퍼스와 지역교회에서 만나는 학생들, 심지어는 그리스도인 학생들의 꿈도 이러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좋은 배우자 만나고, 좋은 직장 잡고, 좋은 교회에서 좋은 신앙생활 하는 것. 여러 가지 다른 형태의 꿈을 이야기하지만, 그 내용을 자세히 분석해보면 결국은 그 꿈이 '정규직'인 것이다. 경제적 안정을 확보하는 일, 자신의 야망을 성취하는 일, 사회적 인정을 추구하는 일들은 따지고 보면 장래희망을 정규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의 약간 세련된 표현에 지나지 않을지도 모른다.

물론 정규직이 되거나,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좋은 직장을 잡고, 좋은 교회에서 좋은 신앙생활을 하는 일이 나쁜 일은 아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 때문에 그것을 얻고자 하느냐, 그것을 얻고자 하는 뒤에 숨어 있는 동인(motivation)과 세계관이 무엇이나 하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 - 잃어버릴 수 없는 꿈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헌신을 이야기할 수 없는 세대가 정말 되었다고 한다 하더라도, 과연 그럼 이제는 그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헌신을 언급하는 일 자체를 포기해야 할까? 하나님과 하나님을 따르는 신앙을 서정적, 개인적 영역에만 제한시킨 채 그 관점에서 얻을 수 있는 최상의 것만을 추구해야 할 것인가? 절대 그럴 수 없다. 세례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자 했을 때 처음 이야기했던 것,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선포하고자 했던 핵심 메시지인 하나님 나라는 우리 신앙의 핵심이 아닌가. 그 핵심가치를 위해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이 자신의 삶을 헌신, 희생하였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 가치를 붙들지 않았던가.

그리고 삶과 신앙의 현장에서 만나는 젊은 학생들에게서, 바로 그들의 삶 전체를 꿰뚫어 통합할 수 있는 가치에 대한 목마름을 여전히 볼 수 있지 않은가. 20세기에 만났던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을 띠기도 하지만, 여전히 자신의 삶과 인생을 던질 수 있는 그 무엇에 대한 간절함이 있지 않은가. 하나님 나라는, 포기할 수도 타협할 수도 없는 우리 모두의 궁극적 꿈이자 희망이 아닌가. 문제는 하나님 나라와 같은 거시적인 관점에 헌신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같은 핵심 가치가 더는 이야기되지 않는 데 있는 것은 아닐까.

KOSTA/USA-2008 집회에서는

이러한 맥락에서 KOSTA/USA-2008 집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기대해 본다.

첫째, 삶을 의미 있고 아름답게 통합하여 살아갈 가치가 우리 안에 있지 않음을 깊이 보게 되기를 기대한다. 우리가 이미 가진 삶의 길에 대한 내용이 얼마나 심하게 비탈어져 있는가 하는 내용을 보며 함께 애도하는 일들이 있기 원한다.

둘째,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삶의 길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있기를 기대한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수록 우리 안의 거저되고 어그러진 가치관들이 상대적으로 더 초라하게 드러날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통해 제시된 궁극적 삶의 가치들을 우리 것으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목마름이 우리 안에 생길 것이다.

셋째, 하나님 나라를 통해 제시되는 삶의 길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일들이 있기 원한다. 아직 그 가치 자체를 받아들이고 있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아름다운 궁극적 삶의 길을 내 것으로 새롭게 받아들이게 되고, 이미 그 가치를 알고 있으나 삶 속에서 통합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제 삶을 지배하는 원리로서 새롭게 정리하고 결단하는 일들이 있기 원한다. 유일한 삶의 바른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변화가 있기 원한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를 알지 못하는 세대에서 유일한 삶의 바른길을 선포하고 전하는 일들에 많은 이들이 함께 헌신하기 원한다. 세상이 그토록 목말라 보고 싶어 하는 올바른 삶의 길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고, 이제 우리에게 함께 부를 노래가, 함께 외칠 구호가, 함께 흔들 깃발이 있음을 선언하기를 원한다.

KOSTA/USA-2008 집회를 통해 큰 감동을 하고, 집회가 성황리에 마쳐지는 것은 분명히 이 집회를 준비하고 참석하는 모두가 바라는 바이다. 그러나 집회를 통해 부여주실 큰 은혜에 대한 기대 이상으로, KOSTA/USA-2008 집회 이후 하나님께서 미국 내 한인 청년 학생 디아스포라의 삶을 어떻게 바꾸어 가는지, 그로 말미암아 바로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선포되고 확장될 것인지 하는 것에 대한 기대가 우리를 흥분시킨다.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 '그 길'을 보게 하시고, '그 길'을 살아가고자 하는 열망을 허락하시며, '그 길'을 살아가도록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소서. †

[기획기사]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비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니라.” (눅 4:43-44) 이처럼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이었을 뿐 아니라 사역의 가장 중요한 주제였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 또는 하늘 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기록한 사복음서에 매우 빈번하게 나타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성경본문이 보여주듯이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중심인 예수님의 중요한 비전이었다. 자신의 갖고 있던 비전 중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인 하나님 나라에 대해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이번 칼럼은 예수님의 설교, 예수님의 기도문, 예수님의 비유, 세 가지를 살펴보고 예수님의 기대하셨던 비전을 더 깊이 이해해보고자 한다.

예수의 설교 예수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의 생각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는데 설교문은 그 중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신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유대인들의 경전 형식에 가장 가까운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설교문이 수록되어 있다. 팔복 설교 (마 5:3-12), 여섯 가지 대조적인 가르침 (마 5:21-48), 황금률 (마 7:12), 좁은 문에 대한 비유 (마 7:13-14)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시발점을 구약성경의 율법에 두지만 그 율법의 기준을 능가한다.

그것은 율법의 문자적 준수 이상으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 기초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윤리적 행동을 의미한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통치에 힘입은 의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으로 제시한다. 제자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려면 자기 자신을 죽여야 하고 지속적으로 마음을 다하여 기도해야 한다.

예수의 기도문 한편 예수님은 자신의 새로운 기도문을 산상수훈 설교의 가장 중심부에 둬으로써 스스로 가르침의 핵심을 제시하였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함께 나누고 제자 공동체가 공유하는 영적인 기준으로 삼게 하셨다. 따라서 우리들은 이 기도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새롭게 창조하려는 공동체의 이상과 소망을 알 수 있다. 주기도문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는 세 가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청원이 있다. 이 청원을 살펴보면 하나님 나라는 오는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이어지는 세 가지의 청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청원은 하나님의 초월과 은혜가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며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의 모습인 것을 강조한다.

예수의 비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삶에 대해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치셨다 (막 4:2). 예수님의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그의 제자들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라는 윤리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마태복음 13장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가장 자세히 보여준다. ‘성자를 나타내는 비유’, ‘고귀함을 나타내는 비유’, ‘자치의 비유’, ‘청지기의 비유’, ‘분리의 비유’, ‘찾는 비유’, ‘일꾼의 비유’ 등이 있다. 이런 비유들에 따르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성장하고, 하나님 나라는 철저한 요구에 응해야 하며 하나님 나라에서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나님 나라는 아무리 작고 보잘 것없어 보이는 것이어도 그 씨앗이 뿌려졌을 때 이미 시작되었고 궁극적인 승리를 담보하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주인인지 하나님께서 주인인지 결정해야 한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들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것을 소유하려고 할 것이고 그런 반응을 보이는 자들은 결국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되어 마지막 날 해와 같이 빛난 자들이 될 것이다.

예수님의 설교와 기도문, 그리고 비유에 드러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결국 우리들에게 그 나라의 숭고한 가치를 보여주고 그것을 좇는 결단을 촉구하며 그것을 끝까지 지켰을 경우 얻을 수 있는 상급에 대한 소망을 제시하여준다. 상급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과의 완성된 관계이다. 하나님 나라의 참된 백성으로 그분을 깊이 알고 친밀해지는 새로운 관계로 나아갈 것이다. †

기획기사연재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은 기독교의 핵심을 차지하는 주제라고 할 수 있다. 코스타 보이스는 이번 코스타의 주제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검토하는 기획 기사를 마련하였다. 이번 기획기사의 제목은 다음과 같다.

- 기획기사 1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비전
- 기획기사 2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모범 - 십자가
- 기획기사 3
예수님의 부활과 하나님 나라
- 기획기사 4
교회,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 기획기사 5
하나님 나라의 우주적 주권 -
하나님 나라와 악의 문제

KOSTA *in* KOSTA

jjKOSTA JoJang KOSTA, JeJa KOSTA, JustJesus KOSTA

2008년 미국 코스타 집회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코스타 집회 중에서 가장 귀한 것 하나를 꼽자면 앞으로 일주일 동안 누구보다도 가깝게 지낼 조원들과의 만남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이미 많은 코스탄 선배들이 짧은 기간의 조모임을 통해서도 평생 함께 할 수 있는 친구와 동역자를 만났습니다.

코스타의 하이라이트인 조모임을 섬기시기 위해 조장님들은 코스타가 시작하기 한 달 전부터 12개의 지역으로 나뉘어져서 다른 조장님들과 교제를 나누셨어요. 두 주 전부터는 인터넷으로 목상훈련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코스타 등록이 숨가쁘게 진행되는 이 순간에도 조장 수양회를 통해 강훈련을 받으셨습니다. 지난 주일 오후 2시에 조장 수양회는 사랑에 관한 이영길 교수의 말씀과 함께 시작되었고, 작년 주제강의로 섬겨주셨던 손희영 목사께서 해 주신 두 번의 강의로 이어졌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소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깊이 다룬 이 강의에서, 손희영 목사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믿음을 갖고, 부활이 주는 커다란 소망의 의미를 깨달을 때에 우리가 자연스럽게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도전하셨습니다. 월요일에는 정민영 선교사의 주제강의가 계속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의 현장에 임하기 위해서는 신본주의적인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조장님들은 이 외에도 QT 나눔, 조별모임 예행연습과 기도회를 함께 하면서 조원 여러분들을 기다리게 됩니다. 조장 훈련 및 조장 수양회를 통해 조원을 맞이할 준비를 마치고, 코스타 집회 이후에도 제자 삼는 삶을 살고 도와주실 조장님들의 활약을 기대해 봅니다. †



[코스탄과의 만남]

jj KOSTA 정준형 (5지역 코드) 인터뷰



간단하게 자신의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정준형이구요. 지금 일리노이 주립대학 어바나-샴페인에서 전기공학 박사과정에 있습니다.

작년에 조장으로 섬겨주셨는데, 어떤 부분이 가장 힘들고 어떤 부분이 가장 보람 있었나요?

조원들의 필요가 너무 다양해서 그것을 빨리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는 점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조원의 필요를 파악한 이후에도 지혜롭게 권면하는 부분 역시 그리 쉽지는 않았습니다. 첫번째 참석하면서 바로 조장을 했기 때문에 의욕이 앞서고 경험이 부족했던 점, 이를테면 조원을 섬기면서 제 힘으로 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하지 못했던 점, 또 한국에서 오셨는데 몸이 아프셔서 며칠동안 거의 누워계셨던 분이 있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몰랐던 것도 쉽지 않은 부분이었습니다.

반면에 첫번째 조모임부터 조원들이 자신을 열고 코스타에 많은 기대를 가지고 오셨음을 나누었을 때에 보람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조원들이 하루하루 삶을 더욱 구체적으로 깊이 있게 나누고 주제강의를 거울삼아 자신을 되돌아보며 변화되는 모습을 통해 성령님의 역사 하심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각자 기도제목을 들고 오셨는데, 집회를 통해 그 제목에 응답을 받았던 모습,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도 부담감과 걱정스러웠던 모습에서 저를 믿고 삶을 나누는 모습으로 변화되어갔던 것이 감사했습니다.

올해에는 5지역 코디로서 조장들을 섬기고 계신데, 조장으로 섬기실 때와 차이가 있다면 어떤 점인가요?

온라인 훈련을 통해서 조장들과 교체하면서, 한 가지 목표를 위해서 함께 한다는 사실이 좋았습니다. 조장으로 참석할 때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던 것도 감사의 제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조장으로서, 그리고 코디로 섬기고자 했던 특별한 동기가 있었나요?

작년에 친구의 권유로 첫 참석이지만 조장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나 권유가 유일한 이유는 아니었습니다. 섬김을 통해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올해 코디로 지원한 것은 좀더 기도하고 마음을 들여 코스타를 준비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무엇을 많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코디, 조장들과 함께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서 더 깊은 섬김을 배우고 싶었구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더 구체적으로 보고 싶었습니다.

올해 집회에 기대하시는 바가 있다면 짧게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원들이 멀리서 오시는데, 건강하게 잘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원들의 마음을 열어 주셔서 주제강의를 통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심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제 안에 남아있는 옛 습관이나 성경적이지 못한 가치관 중에서 제가 깨닫지 못하고 살아내지 못했던 부분이 있다면, 이번 집회를 통해서 그러한 모습이 드러나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하나님 나라가 아직은 많은 부분 추상적으로 다가오고, 적잖은 참석자들이 비슷할 것이라 생각되는데요. 삶과 전공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와의 관계를 더욱 실제적으로 찾아가고 싶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삶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어떠한지에 해답을 저와 코스탄들이 얻고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제 안에 남아있는
옛 습관이나 성경적이지
못한 가치관 중에서
제가 깨닫지 못하고
살아내지 못했던 부분이
있다면, 이번 집회를
통해서 그러한 모습이
드러나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계기
가 되었으면

코스타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



홍정길 목사
코스타
국제이사장

우리는 코스타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아야 할 백성임을 확인할 뿐 아니라, 왕 되신 그분의 다스림 안에서 하나 됨을 경험하는 축복을 누립니다. 그의 다스림 안에서 인생은 강하고, 복되며 그의 다스림 안에서 하나님의 권능은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납니다. 우리에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신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눅 12:32)



이동원 목사
코스타
국제부이사장

2008 년 코스타가 바른 길을 발견하는 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겸허히 주의 통치에 순종한다면 우리는 이 시대의 바른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모쪼록 주의 나라가 임하는 코스타, 코스타의 시간 시간에서 그의 나라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코스타의 비전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전입니다. 지난 세월 코스타에서 이 비전을 발견한 선배들로 인하여 우리의 역사는 한결 밝고 아름다운 내일을 지향하게 되었습니다. 변함없이 2008 코스타가 그런 비전의 축제가길 기도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함께 그의 나라의 임하심을 기대합니다.



노창수 목사
미국 코스타
2008 조직위원장

2008 년 코스타의 주제는 "이 시대에 바른 길로 - 주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The way to live - Thy Kingdom come) (마 6:10)입니다. 글로벌(global)에서 글로컬(glocal) 시대를 사는 현대인들이 붙잡아야 할 인생의 방향과 비전입니다. 세속적인 가치관과 문화가 있는 삶의 현장에서 "주의 나라가 임하옵소서"(Thy Kingdom come)를 비전으로 삼는 킹덤 드림어(the Kingdom Dreamer) 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똑똑한 코스타들은 꼭 읽어보는데... 2008 코스타 Tip

1. 아직 등록 확인을 못하셨나요?

Alumni Gym에 위치한 등록처를 찾아 주세요.

2. 본부로 문의할 것이 있습니다. 위치가 어떻게 되나요?

월요일 등록 확인이 끝나기 전까지는 Alumni Gym으로 문의하시고, 화요일 아침부터는 Edman Chapel 로비 오른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응급 환자가 있거나 비상약이 필요하실 때, 물건을 잃어버리셨을 때, 1회용 식권을 구입하고 싶으실 때에는 주저하지 말고 본부를 찾아주세요.

3. 전체집회 시작하고 나면 문이 닫힌다는 소문이 있던데요.

전체집회를 여는 영상이 시작되면 1층으로 입장하실 수는 없습니다. 단 집회 중간에 한번은 자리를 옮기실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4. 오늘 집회 끝나고 조모임은 어디서 하나요?

M 및 P로 시작하는 조는 광고의 테이블을 참조해 주십시오. 테이블에 기록되지 않은 조는 첫번째 조모임을 등록 용지에 적힌 조장님 방에서 하시게 됩니다.

5. 자원봉사자 신청을 했는데 어디서 안내를 받나요?

팀별로 이미 안내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자원봉사 신청을 하셨지만 안내를 받지 못하신 분은 자원봉사 데스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6. 세미나 등록했는데 바꿀 수 있나요?

등록 마감되지 않은 세미나에 한해서 가능합니다. 매일 아침 7-8시에 Alumni Gym앞에서 세미나 티켓을 교환하실 수 있습니다.

7. 세미나 장소는 어떻게 확인 하나요?

매일 아침 발행되는 코스타 보이스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세미나 강의 실 안내를 포함하여 집회 기간동안 필요한 중요한 광고를 확인하실 수 있구요. 오전 집회 전에 Edman Chapel에서 픽업하실 수 있습니다.

8. 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한번에 식사를 하나요?

내일부터 점심과 저녁에 2부제 식사를 실시합니다. 빨간색의 meal card를 가지신 분들이 처음 1시간 동안 식사하시구요. 파란색 meal card를 가지신 분들은 조원들과 즐거운 시간을 가지시다 1시간 후에 식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 코스타 보이스에 우리 조 이야기를 투고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매일 저녁 집회가 끝나기 전까지 Edman Chapel 뒤편에 위치한 코스타 보이스 데스크에 기사를 제출해 주세요. 기사가 채택되신 분께는 소정의 기념품을 드립니다. 단 투고하신 기사는 코스타 보이스에서 편 집할 수 있고 코스타에서 저작권을 갖게 됩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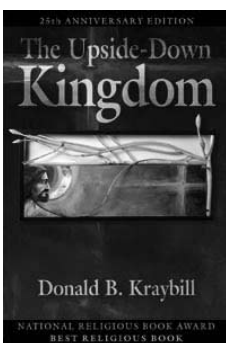
[코스타 서평]

코스타 보이스는 미주 한인 청년 학생들이 고민할 만한 주제에 대한 서평을 기획했습니다. 매일 하나의 주제에 대하여 신앙의 가이드가 될 만한 양서를 소개하고 간단한 비평을 하였습니다. 시리즈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2. 교회, 공동체, 소그룹
3. 이성교제, 결혼, 가정
4. 세계관, 윤리, 진로, 직업
5. 영화평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번 코스타의 주제인 '하나님의 나라'는 많은 그리스도인의 탐구의 대상이었다. 제시되고 있는 다양한 견해 중 예수님이 원래 의도했던 바는 무엇일까. 다음의 책을 참고해보자.



Donald B. Kraybill,

Upside Down Kingdom 25th anniversary edition, Herald Press, June 2003

Kraybill에 따르면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표시하는 가장 좋은 단어는 거꾸로(upside down)이다. 세상의 질서와 반대되는 것, 세상의 질서를 거스르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의 특징이다. 그것은 힘을 이용한 정치, 군사력을 거부하였고 (Chapter 2. Mountain Politics), 위엄과 상징을 지닌 종교적인 권위를 부인하였고 (Chapter 3. Temple Piety), 물질과 경제력으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제적인 부를 거부하였다. (Chapter 4. Wilderness Bread) 당시의 경제적, 정치적 상황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예수님의 비폭력, 겉으로 보기에 약하고 소외된 삶이었지만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신 예수님의 삶을 보여주고 있다.

김군진,

역사의 예수와 하나님의 나라, 연세대학교출판부

하나님의 나라는 다양한 형태로 표현되어 있다. 메시아 예수의 오심과 그의 인격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사회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종교와 하나님의 나라, 십자가와 부활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의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고 있다. 예수님의 일생 속에서, 그분의 가르침 속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은 약자와 가난한 자, 세리와 죄인의 친구되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있다. 사랑의 구체적 실천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서로 용서하고 자기를 낮추고 서로 섬기는 것뿐 아니라 사회의 부를 재분배까지 포함하는 것이다. 예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으로 저자는 예수님 안에 드러난 하나님 나라를 증명하고 있다.



김세운,

주기도문 강해, 복음이란 무엇인가, 두란노

주기도문은 예수님 자신이 자신의 생각을 요약하고 정리한 자신의 생각의 정수이다. 한 구절 한 구절이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이다. 저자는 주기도문이 다른 기도문과 다른 점을 지적하고 주기도문에 등장하는 여섯 가지의 청원의 의미를 밝힌다. '복음이란 무엇인가'에서는 예수님이 말한 하나님의 나라와 사도 공동체가 예수님의 삶과 죽음, 부활이라는 일련의 사건 속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나라에 연속성이 있음을 설득력있게 주장하고 있다.



로이드 존스,

하나님의 나라, 기독교문서선교회

유명한 설교가인 로이드 존스의 강해설교이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신약 성경의 구절들에 대한 12개의 강해설교로 하나님 나라의 속성인 '의와 평강과 화락', '신비', '능력' 등의 주제로 설교를 이어가고 있다. 비교적 이해하기 쉬운 문체로 설교를 진행하고 있어 소그룹에서 함께 읽고 토의하기에 좋은 책이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주의적 시각을 잘 이해할 수 있다.

[코스타 광고]

알려드립니다 !!!

1. 세미나 취소 안내

- ▶SP110 QT/말씀묵상 (탁주호 목사)
- ▶TH230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 - 아직도 필요한 것인가? (이일형 박사)
- ▶TH310 한국인 (이문장 교수)

2. 중보기도실 안내

- ▶조별 기도실은 본당 동쪽 옆 Kresge Room으로서 24시간 내내 열려 있습니다. 조별 기도를 하실 때에는 Edman Chapel 로비에서 조장이 예약할 수 있습니다.
- ▶개인 기도실은 식당 지하 Gold Star Chapel로서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열려 있습니다. 예약할 필요는 없고, 오후 11시 이후 개인 기도를 하실 분들은 Kresge Room으로 옮겨서 계속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 ▶새벽 기도는 화요일부터 매일 오전 6-7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중보기도팀과 함께 기도하실 분들을 환영합니다.

3. 상담실 안내

상담 신청을 오늘 오후 5 - 7시에 Alumni Gym 2층 Chicago Room에서 받습니다. 오늘 받는 상담 신청은 두 가지로서, 일반상담 신청과 화요일 심야에 있을 그룹상담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룹상담 주제는 진로 혹은 이성교제/배우자 중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일반상담 신청을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 30분까지 받습니다. 단 오전 및 저녁 전체집회 시간은 제외됩니다.

4. Off-campus 숙박 셔틀 버스 안내

※ 오전운행 (화-금) ※

Holiday Inn (출발) - 호텔 정문 / Wheaton (도착) Alumni Hall 앞	
6:40 a.m.	6:55 a.m.
6:50 a.m.	7:05 a.m.
7:00 a.m.	7:15 a.m.
7:10 a.m.	7:25 a.m.
7:20 a.m.	7:35 a.m.
7:30 a.m.	7:45 a.m.
7:40 a.m.	7:55 a.m.
7:50 a.m.	8:05 a.m.

※ 오후운행 (월-목) ※

Wheaton (출발) Holiday Inn (도착) / Holiday Inn (출발) Wheaton (도착)			
1:00 p.m.	1:15 p.m.	1:30 p.m.	1:45 p.m.
2:00 p.m.	2:15 p.m.	2:30 p.m.	2:45 p.m.
3:00 p.m.	3:15 p.m.	3:30 p.m.	3:45 p.m.
4:00 p.m.	4:15 p.m.	4:30 p.m.	4:45 p.m.
5:00 p.m.	5:15 p.m.	5:30 p.m.	5:45 p.m.
6:00 p.m.	6:45 p.m.	6:30 p.m.	6:45 p.m.
7:00 p.m.	7:15 p.m.	7:30 p.m.	7:45 p.m.

※ 야간운행 (월-목) ※

장소: Edman Chapel Parking Lot
 월-수: 9시 20분 버스 6대 동시출발
 목: 9시 40분 버스 6대 동시출발

◆◆ 동시출발하는 6대의 버스가 숙소로 가는 마지막 버스입니다. 놓치시면 개인적으로 숙소로 이동하셔야 합니다.

5. 오늘밤 조별모임 장소 안내

조	모임장소	조	모임장소
M1	Fischer South 3층 라운지	M28	Fischer East 551
M2	Fischer East 5층 라운지	M29	Traber 7층 유리벽 미팅룸
M3	Fischer East 3층 라운지	M30	Fischer East 351
M4	Fischer West 4층 라운지	M31	Traber 719
M5	Fischer West 5층 라운지	M32	Traber 603
M6	Fischer 메인 로비 왼쪽	M33	Fischer West 520
M7	Smith 2층 오른쪽 라운지	M35	Blanchard 140
M8	Smith 2층 오른쪽 라운지	M36	Blanchard 222
M9	Fischer South 5층 라운지	M47	Blanchard 322
M10	Fischer West 2층 라운지	M48	Fischer East 359
M11	Smith 1층 (로비아래층) 라운지	M49	Fischer East 360
M12	Smith 3층 (로비 위층) 라운지	M50	Blanchard 323
M13	Smith 3층 (로비 위층) 라운지	M51	Fischer West 1층 라운지
M14	Traber 1층 왼쪽 TV 근처 라운지	M52	Fischer South 4층 라운지
M15	Traber 2층 유리벽 미팅룸	M53	Blanchard 324
M16	Traber 3층 유리벽 미팅룸	M54	Fischer East 451
M17	Fischer West 303	M55	Fischer East 554
M18	Fischer West 203	M56	Fischer West 3층 라운지
M19	Fischer West 207	P1	Blanchard 339
M20	Traber 4층 유리벽 미팅룸	P2	Blanchard 455
M21	Traber 5층 유리벽 미팅룸	P3	Fischer 메인 로비
M22	Fischer West 421	P4	Blanchard 472
M23	Traber 6층 유리벽 미팅룸	P6	Fischer East 4층 라운지
M24	Fischer West 111	P7	Blanchard 125
M25	Fischer East 555	P8	Traber 602
M26	Fischer East 570	P9	Traber 715
M27	Traber 615		

6. Expo 자원봉사자

화요일 7:45am Alumni Gym에서 예비모임 있습니다.



미주 한인
 복음주의 학생운동의
 소통의 장!

<http://ekosta.org>